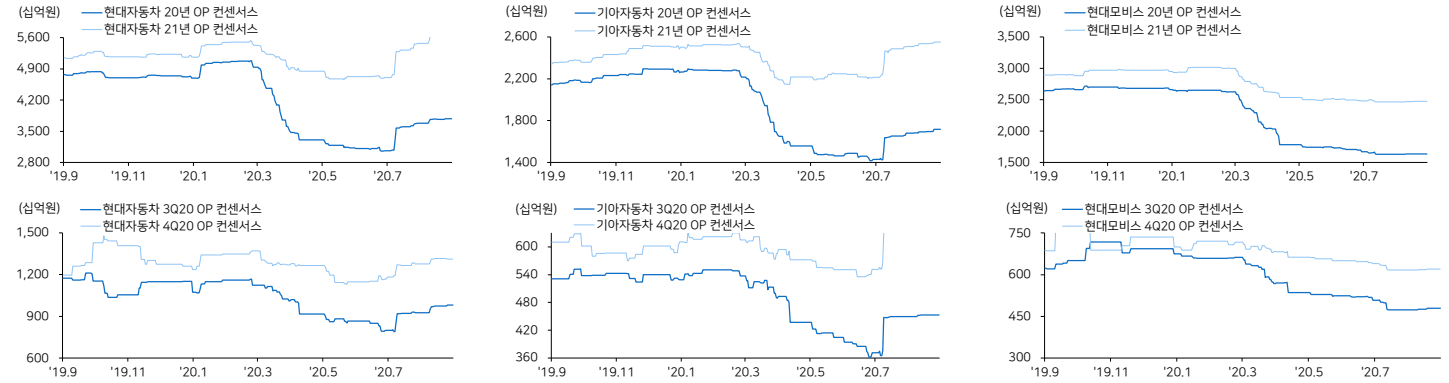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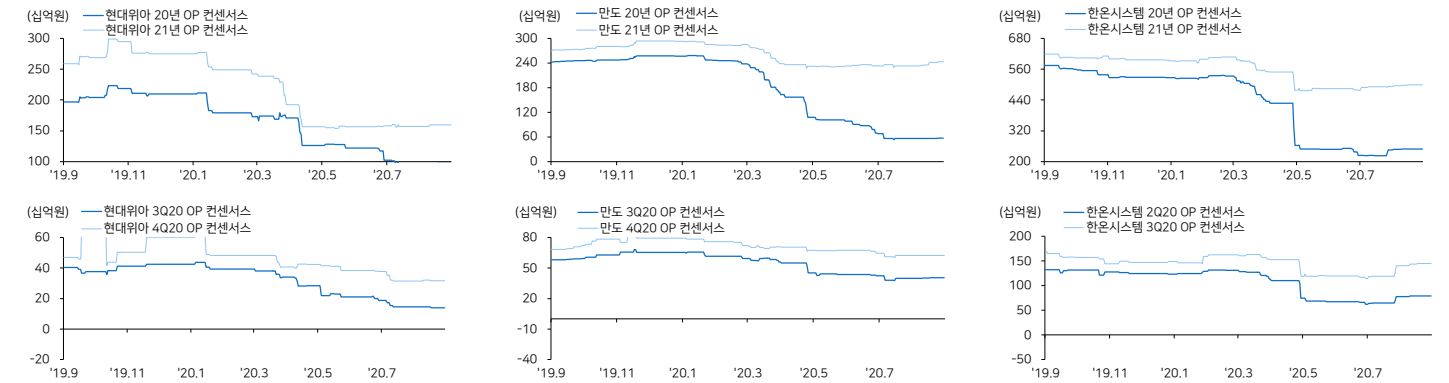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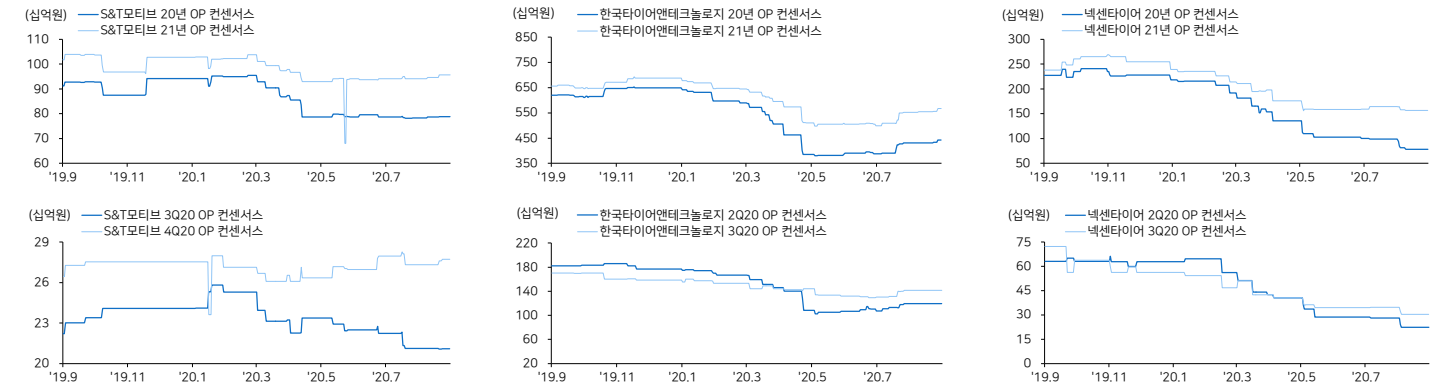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현대차, 디지털기 기반 대리운전·차량배송 개시 (IT조선)

현대자동차가 디지털기을 통해 운전자의 위치와 상관없이 대리운전과 차량 배송을 요청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출시. 주차장·백화점·세차 업체 서비스 등으로도 범위를 넓힐 계획. <https://bit.ly/3hv84Vj>

S&P, 현대차그룹 부정적 관찰 해제...등급 전망은 '부정적' (연합인포맥스)

S&P가 현대차 그룹의 계열 기업의 신용등급을 강등하지 않고 '부정적 관찰 대상' 등재를 해제. S&P는 다만 신용등급 전망은 '부정적'으로 제시. S&P는 "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사업은 꾸준한 내수 등으로 지지력을 보여줬다"고 평가. <https://bit.ly/2RrYE28>

환경부 "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체계 개선...한시 지원도 검토" (연합뉴스)

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전기차·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내세움. 하지만 올해 7월 전기차 충전기본요금 할인이 낮아지면서 충전요금에 오르자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. <https://bit.ly/35c1XV5>

절박한 마세라티 "모든 신차, 전기차 버전 내놓겠다" (중앙일보)

마세라티가 앞으로 스포츠카를 포함한 모든 신차에 전기차 버전을 함께 만들겠다고 선언.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전통과 추세 속에 럭셔리 브랜드인 마세라티도 절박한 선택을 한 것. <https://bit.ly/3klBuaj>

코로나 피해 TV로 돌아간 현대차... "투산 공개 생중계" (한국경제)

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현대차가 TV와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나섬. 스마트TV를 활용한 미디어 채널 '채널 현대'를 이날부터 제공. 채널 현대는 오는 15일 투산 공개 행사를 '라이브' 메뉴에서 생중계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. <https://bit.ly/2ZA2ASQ>

중국산 테슬라 '모델 Y', 이르면 11월 생산 (ZD코리아넷)

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공장 건설 진척 상황을 감안하면 11월부터 중국산 '모델 Y'이 생산될 것이라 전망이 제기됨. 중국 언론 상황까지 따르면 테슬라는 모델 Y 생산 준비 작업을 시작하고 있으며, 이르면 11월부터 첫 결실을 볼 것으로 전망. <https://bit.ly/35FdfQ7>

수입계 '내수방어' 3책... "감세·중고차·전기차" (노컷뉴스)

국내 완성차 판매 현장에서 8월 이후 위축되는 내수에 대한 활성화 정책 주문이 터져 나올. 출가치게 제기되고 있지만, 실현되고 있지 않은 정책들, 개별소비세 인하 폭 확대, 인증중고차 시장 개방, 내수 전기차에 대한 진척 방안 등이 골자. <https://bit.ly/3c2wJlL>

도요타·혼다, 수소버스 비상전원으로서 가치 검증 (가스신문)

자연재해 발생 시 연료전지자동차를 비상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요타와 혼다가 이동형 발전시스템에 대한 실증을 진행. 두 회사는 지진, 태풍, 폭풍우 등으로 인한 전력망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, 이번달부터 현장실증에 돌입. <https://bit.ly/2Rrm0Fc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